

#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7 강

예언의 목적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http://www.thirdmill.org)

# 선지서 해석

## 제 7 강 예언의 목적

### 목차(Contents)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하나님의 주권(Divine Sovereignty)</b> .....	<b>1</b>
A. 하나님의 불변성(God's Immutability)	2
1. 하나님의 성품(God's character)	2
2. 언약의 약속(Covenant Promises)	3
3. 영원한 작정(Eternal Counsel)	3
B. 하나님의 섭리(God's Providence)	4
<b>III. 예언과 속발 사건(Predictions and Contingencies)</b> .....	<b>6</b>
A. 일반적인 패턴(General Patterns)	6
1. 관찰(Observation)	6
2. 설명(Explanation)	7
3. 상술(Elaboration)	7
B. 구체적인 예(Specific Examples)	9
1. 스마야의 예언(Prediction of Shemaiah)	9
2. 요나의 예언(Prediction of Jonah)	10
<b>IV. 예언의 확실성(Certainty of Predictions)</b> .....	<b>12</b>
A. 조건적인 예언(Conditional Predictions)	13
B. 무조건적인 예언(Unqualified Predictions)	13
C. 확증된 예언(Confirmed Predictions)	14
1. 말씀(Words)	15
2. 표징(Signs)	16
D. 맹세한 예언(Sworn predictions)	16

<b>V. 예언의 목표(Goals of Predictions)</b> .....	<b>19</b>
A. 통속적인 관점(Popular Perspectives)	19
B. 바른 관점(Correct Perspectives)	21
1. "누가 알랴?"라는 반응("Who Knows?" Reaction)	21
2. 이중 반응(Twofold Reaction)	23
<b>VI. 결론(Conclusion)</b> .....	<b>23</b>

#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 제 7 강 예언의 목적(The Purpose of Predictions)

### I. 서론(INTRODUCTION)

구약의 선지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왜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선지서 안에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에 관하여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로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를 만들도록 격려하기 위해 예언한 것임을 배울 것이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예언의 목적”이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선지자들이 미래에 관하여 말한 이유를 탐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의 목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 주제를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선지자들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둘째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과 인간적인 속발 사건에 관하여 무엇을 믿었는가? 셋째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의 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넷째로, 구약의 선지서에 들어 있는 예언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럼 먼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지자들의 자기 예언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 II. 하나님의 주권(DIVINE SOVEREIGNTY)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처럼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고, 너무 많이 운동하거나 너무 적게 운동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신학에서도 일어난다.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자주 극단으로 치우치는데 특히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제에 대하여 그렇다. 우리는 인간의 책임의 실재를 배제해 버릴 정도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해 버릴 정도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을 본다. 현재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개념들에 대해 너무나 많은 혼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성경의 교리는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한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제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전통적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불변성이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럼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자.

## A. 하나님의 불변성(GOD'S IMMUTABILITY)

간단히 말하면, 불변성의 교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변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구체적인 면들을 찾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sup>1</sup> 사실상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면은 크게 세 가지뿐이다.

### 1. 하나님의 성품(God's Character)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고,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전능하시고,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속성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 13:8 에서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의미한 것이다.

**(히 13:8 개역개정)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sup>1</sup> [역자 주] 그루뎀(W. Grudem, *Systematic Theology*, 163)은 하나님의 불변성(unchangeableness = immutability)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being), 완전성[perfections = attributes, various aspects of his character], 목적들(purposes), 약속들(promises)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다른 상황들에 반응하시며 다르게 행동하시고 느끼신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 구절들은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시 102:25-27; 말 3:6; 약 1:17; 히 1:11, 12; 출 3:14; 사 41:4; 48:12; 롬 1:23; (목적들에 있어서) 시 33:11; 사 46:9-11; 마 13:35; 25:34; 엡 1:4, 11; 3:9, 11; 딤후 2:19; 벧전 1:20; 계 13:8; (약속들에 있어서) 민 23:19 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들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한결같이 동일하다고 믿을 수 있다.

## 2. 언약의 약속(Covenant Promises)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 불변성은 그분의 언약의 약속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맹세를 하실 때,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고 결코 깨뜨릴 수 없다. 다시 한 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히 6:16-17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히 6:16-17 개역개정)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구절들이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 3. 영원한 작정(Eternal Counsel)

성경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가르치는 세 번째 면은 그분의 영원한 작정, 곧 우주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 비록 일부 기독교인 그룹에서 성경의 이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불변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계획이 모든 역사를 지배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요약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본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변하지 않도록 작정해 놓으셨다.

이 고백의 진술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전 포괄적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말한다. 예를 들면, 엡 1:11 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썼다.

**(엡 1:11)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의도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 포괄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했다. 사 46:9-11 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다음과 같은 말을 읽는다.

**(사 46:9-11 개역개정)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 . .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성경적 교리를 믿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언약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우주에 대한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성품에 맞게 행하실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확고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만물에 대한 통치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도 알았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끔찍한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항상 선지자들을 지탱해 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또한 동전의 다른 면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B. 하나님의 섭리(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며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시며 피조 세계로부터 떨어져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스스로 하실 역할이 있으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서 배우이시고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피조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제 5 장 2 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읽는다.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이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에 의해 모든 일이 제이 원인의 특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속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관점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그의 피조 세계와 상호 작용하심으로써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본다. 하나님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제이 원인인 피조세계의 원인과 상호 작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이 서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속발적으로 뒤따라 일어나도록 정하시므로써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 이 구별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로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한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들은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의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섭리의 예측 가능하고 필연적인 패턴을 제공한다. 둘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떤 사건들이 또한 자유롭게 일어난다고 진술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주사위를 굴리는 것, 날씨의 패턴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상적인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무작위로 혹은 자유롭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속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이 모든 일을 감독하고 계시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분은 인간이 선택한 속발 사건과 상호 작용하심으로써 역사의 방향을 통제하신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반응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 사실은 선지자들의 사역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섭리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주제인 예언과 속발 사건을 다루어 보자.

### III. 예언과 속발 사건(PREDICTIONS AND CONTINGENCIES)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을 인간이 선택한 속발(續發) 사건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인간적인 속발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때때로 선지자의 예언과 그것의 성취 사이에 개입된 인간의 선택이 역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예언과 속발 사건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주제는 성경이 우리로 기대하도록 가르치는 일반적인 패턴이고, 둘째 주제는 이 역학적 원리의 구체적인 예이다.

#### A. 일반적인 패턴(GENERAL PATTERNS)

그럼 먼저 예언과 역사적 속발 사건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혹은 일반적인 패턴을 살펴보자. 아마도 우리가 이 일반적인 패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지서의 가장 좋은 단락은 렘 18:1-10 일 것이다. 이 단락은 매우 중요하므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 단락의 세 가지 측면을 다룰 것이다. 첫째는 렘 18:1-4 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관찰이고, 둘째는 렘 18:5-6 에 나오는 주님의 설명이고, 셋째는 렘 18:7-10 에 나오는 주님의 상술이다.

##### 1. 관찰(Observation)

렘 18:1-4 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관찰을 먼저 들어보라.

(렘 18:1-4 개역개정)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망가졌음을 보고 그의 계획을 바꾸어 다른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토기장이는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관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보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상징적인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렘 18:5-6 에서 여호와와 예레미야에게 이 경험의 의미를 말씀하셨다.

(렘 18:5-6 개역개정)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 2. 설명(Explanation)

이 단락은 성경의 많은 구절처럼 토기장이가 여호와를 타나내고 진흙이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이 단락이 밝혀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의 진흙을 다루는 것처럼 그분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자기 백성을 다룰 권리를 보유하셨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불변하신 성품이나 그분의 언약이나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위배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런 매개 변수들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는 방식들을 자유롭게 바꾸신다.

## 3. 상술(Elaboration)

토기장이에 대한 관찰과 하나님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유추를 선지자들의 예언에 적용하셨다. 첫째로, 렘 18:7-8 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예언을 언급하셨다.

**(렘 18:7-8 개역개정)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서술하시는지 주목하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어느 나라와 관련해서도 언제라도 다가올 심판을 선언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회개라는 역사적인 속발 사건이 개입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그 성취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선택한 역사적인 속발 사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 원리가 다른 종류의 예언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렘 18:9-10 에서 복의 예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렘 18:9-10)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병행되는 상황에 유의하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리고 어느 나라와 관련해서도, 안전과 번영의 복을 선언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반역과 불순종이란 역사적인 속발 사건이 개입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래 의도하셨던 선을 행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예레미야 18 장은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의 모든 예언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심판의 위협과 복의 제공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대응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시며 그들의 미래에 무엇을 하실지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B. 구체적인 예(SPECIFIC EXAMPLES)

지금까지 예언과 속발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살펴보았으므로, 이 원리가 잘 적용된 몇 가지 예들을 살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에는 인간의 선택으로 일어난 속발 사건이 예언의 성취에 큰 차이를 낳은 경우에 대한 무수한 예들이 있다. 우리는 이 역학적 원리가 나타난 많은 경우들 중에서 두 가지 예만 살피려고 한다. 그 첫 번째 예는 선지자 스마야의 예언이고, 두 번째 예는 요나의 예언이다.

### 1. 스마야의 예언(Prediction of Shemaiah)

그럼 먼저 스마야의 예언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하 12:5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스마야의 심판 선언을 읽는다.

(대하 12:5 개역개정) 그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가 이 예언에 대하여 어떤 명백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라. 선지자들의 사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작정을 계시한 것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말이 단지 하나님의 경고, 곧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일에 대한 경고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대하 12:6 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된다.

(대하 12:6 개역개정)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다.

이 단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역사적 속발 사건으로 개입된 겸허한 기도가 스마야의 예언의 성취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스마야 자신도 이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회개한 후에 스마야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대하 12:7-8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대하 12:7-8 개역개정)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단락은 스마야의 사역이 오늘의 설교자들의 사역과 매우 비슷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사람들을 정죄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도라는 인간의 반응이 스마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낳은 것을 보았다. 이 경우에 스마야의 예언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지만 완화되고 누그러져 예루살렘에 대한 시삭의 공격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 2. 요나의 예언(Prediction of Jonah)

예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미치는 영향의 두 번째 예는 요나서에 나온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셔서 다가올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것을 알고 있다. 욥 3:4 에 의하면 요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욥 3:4 개역개정)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엇이 이 예언보다 더 간단할 수 있겠는가?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까지 40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는 “-이라면”이나 “그리고”나 “그러나”와 같은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나서 3 장의 나머지 부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니느웨의 왕과 백성이

그들의 짐승들과 함께 벼룩을 입고 재를 덮어쓰며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 욘 3:7-9 에서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욘 3:7-9 개역개정)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벼룩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간단히 말하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회개라는 개입된 역사적 속발 사건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었다. 이 역사적 속발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욘 3:10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욘 3:10 개역개정)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예언의 성취 문제는 니느웨의 회개로 인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다. 나중에 요나는 욘 4:2 에서 여호와께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욘 4:2 개역개정)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의 예언을 선포하면서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알았다. 사실상 니느웨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멸망당한 일은 그로부터 100 년이 더 지나서야 일어났다.

예레미야 18 장의 일반적인 원리와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선택한 속발 사건이 자주 예언들이 성취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나 복을 뒤집으셨다. 때때로 하나님은 복을 완화하거나 심판을 경감시키곤 하셨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심판을 강화시키거나 복을 증대시키곤 하셨다.

지금까지 개입되는 역사적 속발 사건이 예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 주제로 나아갈 것이다. 구약의 신자들은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확실성 혹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취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얼마나 확신할 수 있었는가?

#### IV. 예언의 확실성(CERTAINTY OF PREDICTIONS)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서에서 발견되는 예언의 종류들을 복습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전 강의들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축은 언약의 복들과 심판들 사이의 변동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자연계와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복들을 선언하는 것과 자연계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선언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전 강의들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구조적 축도 살펴보았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더 크거나 더 작은 복들과 심판들의 범위를 따라 어딘가에 위치한다. 여러분은 많은 종류의 작은 복들과 심판들이 선지자들에 의해 선언되었지만 가장 큰 심판은 국외 추방이고 가장 큰 복은 국외 추방 이후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원래의 청중에게 전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재빨리 훑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차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청중에게 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복들과 심판들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들을 시행하실 하나님의 결심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암시하기도 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 선지자들은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행하실 매우 낮은 수준의 결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행하실 매우 높은 수준의 결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행하실 높거나 낮은 수준의 결심을 갖고 계심을 말할 때, 선지자들이 매우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상호 작용하시며



섭리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어떤 때는 자신의 결심의 수준이 매우 높음을 계시하셨고, 어떤 때는 자신의 결심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계시하셨다.

### **A. 조건적인 예언(CONDITIONAL PREDICTIONS)**

구약의 예언의 이러한 차원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결심이란 스펙트럼을 따라 네 가지 지점들을 가리킬 것이다. 첫째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것을 계시하는 많은 예언들을 했다. 이러한 예언을 할 때 그들은 그 예언에 명백한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그렇다면”의 형식으로 된 명백한 조건이 구약의 선지서에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사 1:19-20 에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적인 예언을 읽는다.

(사 1:19-20 개역개정)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단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었다. 여러 번에 걸쳐 선지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조건을 제시하며 역사가 취할 방향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직 열려 있으시고 그 방향은 그들이 취한 선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 주었다.

### **B. 무조건적인 예언(UNQUALIFIED PREDICTIONS)**

하나님의 결심의 축에 있는 두 번째 지점은 조건이 없는 예언들에 나타난다. 이 구절들은 미래에 관한 단순한 진술이다. 명시적인 조건이 그것들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선지자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미래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로 더 굳게 결심하신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들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의 반응으로 인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종류의 예언의 한 가지 예를 본 적이 있다. 욘 3:4 에서 선지자 요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선언했다.

### (욘 3:4 개역개정)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예언에는 명시적인 조건이 전혀 없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럴지라도 니느웨성 안에서 의미 심장하고 광범위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성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다.

언약의 복들도 조건이 없는 예언의 형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학 2:21-23에서 학개가 스룹바벨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라.

(학 2:21-23 개역개정)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 . .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 . .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스룹바벨을 자기 백성 위에 왕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명시적인 조건은 없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룹바벨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후포로기 공동체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이 인간적인 속발 사건이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C. 확증된 예언(CONFIRMED PREDICTIONS)

어떤 예언들은 하나님을 여러 가능성에 열려 있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더 높은 수준의 결심을 하신 것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확증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의 결심을 전달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예언을 확증하는 두 가지 주된 방식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더 높은 결심을

알려주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표징으로 자신의 더 높은 결심을 보이셨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확증부터 살펴보자.

### 1. 말씀(Words)

말씀으로 확증하신 가장 좋은 예는 아모스 1 장에 나온다. 암 1:3 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암 1:3)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은 아모스 1 장의 예언들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듭거듭 이 문을 반복하셨는가? 그분은 자신이 이러한 심판들을 실행하실 높은 수준의 결심을 갖고 계심을 알려주고 싶으셨다. 그러나 이런 확증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했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진지하고 철저한 회개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암 5:4 와 5:6 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라.

**(암 5:4, 6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 . .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벤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1 장과 2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도 그분의 진노에 찬 불을 보내기로 굳게 결심하셨음을 보여주지만, 여기 암 5:4, 6 은 진지하고 광범위한 회개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단락들은 이와 같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결심을 확증해 주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크게 결심하셨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청중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진지하게 회개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 2. 표징(Signs)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의 결심에 말씀을 통한 확증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에 표징을 결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의 의도를 알려주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로 매우 높은 수준의 결심을 하신 것을 분명하게 밝힐 목적으로 선지자들이 다양한 표징과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한다. 어떤 표징이 예언에 수반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실행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행의 한 가지 가장 분명한 예가 이사야 7 장에 나온다. 여러분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 7:11 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 7:11 개역개정)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사야가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증을 주었지만, 아하스 왕은 위선으로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징을 주셨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표징이 되는 대신 정죄의 표징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자들이 조건적인 예언과 무조건적인 예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향으로 실행하실 높은 수준의 결심을 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의 많은 예언들을 말씀과 표징으로 확증한 것을 살펴보았다.

### D. 맹세한 예언(SWORN PREDICTIONS)

네 번째 유형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기로 완전히 결심하신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형식을 취한다.

자주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알린다. 예를 들어, 암 4:2 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이 적들에 의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맹세하신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암 4:2 개역개정)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또 다른 맹세 공식이 겔 5:11 에 나온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겔 5:11 개역개정)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핍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에 맹세를 덧붙이시면, 그것은 그 예언을 언약적 확실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분의 언약들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선지자들이 예언에 하나님의 맹세를 덧붙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신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덧붙이실 때 그 예언을 실행하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입될 역사적인 속발 사건들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실 여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 “언제?”의 문제는 자주 미결정 상태에 있고, 시기의 조절은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정확하게 누가 그 예언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주 유동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셋째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은 자주 명시되어 있지 않다. 넷째로, 예언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미결정 상태에 있다.

암 6:8 에 나오는 심판의 맹세를 고려해 보라.

(암 6:8 개역개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그의 책의 앞 부분에서 피난의 가능성을 남겼을지라도, 이 시점에서 아모스가 완전히 사마리아를 정죄하며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맹세가 “언제?”와 같은 미결정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에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다. 이 멸망은 곧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연기될 것인가? 정확하게 누가 죽을 것인지, 누가 추방당할 것인지, 누가 피난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정으로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수단을 쓰셔서 멸망시키실 것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실상 이 멸망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것인지도 역시 미정이다.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인 반응에 비추어 대답될 것이다. 그들의 기도와 회개 혹은 그들의 반역과 반항에 따라 이 예언의 성취는 굉장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에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사 62:8 에서 우리는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맹세를 읽는다.

**(사 62:8) 여호와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팔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백성은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인가? 누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인가? 무슨 수단으로 하나님은 이 회복을 성취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 회복은 일어날 것인가? 맹세가 곁들여진 예언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은 항상 열린 채로 남아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는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준의 결심이 있으셨음을 알려준 것을 살펴보았다. 어떤 예언들은 그것들이 완전히 미정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예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암시적이었다. 어떤 예언들은 말씀과 표징을 통해 확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예언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확증되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을 연구할 때 예언과 개입되는 역사적 속발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기억하는 일은 항상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실행하시려는 다양한 수준의 결심이 있으셨다. 이 다양한 수준의 결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 V. 예언의 목표(GOALS OF PREDICTIONS)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의 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목표를 탐구할 수 있다. 선지자들은 왜 예언을 했는가?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언의 목적에 대한 통속적인 관점을 다루고 다음으로 그것에 대한 바른 관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

### A. 통속적인 관점(POPULAR PERSPECTIVES)

그럼 먼저 구약의 예언의 목적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오해를 살펴보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목적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징후”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들은 예후(豫後)에 관하여 말할 때 장차 어떤 병이나 어떤 상태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단순히 미래에 관하여 예언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지를 갖고 있었다고 믿는다. 이 견해에도 일말의 진리의 요소가 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주어진 시기에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개입되는 역사적 속발 사건이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징후에 대한 이러한 통속적인 집착의 배후에 서 있는 단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 18:20-22 이다. 이 단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선언했다. 신 18:21 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묻는 질문에 해당한다.

(신 18:21 개역개정)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신 18:22 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신 18:22 개역개정)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단락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오해는 대충 다음과 같다. 여호와와 참 선지자가 어떤 일을 말한다면 그 일은 그가 말한 그대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참 선지자에 대한 시험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이미 살펴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융통성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배후에 있는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선지자들은 말할 때 그들이 예언한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인상을 항상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말은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인간의 반응이 예언의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선지자들에 대한 시험을 적용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선지자가 무엇을 명시적으로 말했는지 물어볼 뿐만 아니라 어떤 암시적인 조건이 그들의 예언에 적용되는지도 물어보아야 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예언에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맹세만이 미래 사건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선지자들이 심판의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도록 정죄하지 않고 심판에 대하여 경고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복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경우, 모세가 제시한 시험은 중요한 역사적 속발 사건의 개입에 의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중요한 인간적인 반응이 성취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모세가 제시한 시험은 쉽게 적용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응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찰자들은 중요한 개입된 역사적 속발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들이 있었다면 모세가 제시한 시험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 B. 바른 관점(CORRECT PERSPECTIVES)

징후가 예언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면, 선지자들의 예언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선지자들은 주로 그들의 청중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미래에 관하여 말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지자들은 청중에게 미래에 관한 정보를 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청중이 자극을 받고 미래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신자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소위 “누가 알라?”라는 반응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소위 “이중” 반응을 살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누가 알라?”라는 반응(“Who Knows?” Reaction)

첫째로, 우리는 “누가 알라?”라는 반응을 살펴보아야 한다. 구약에서 세 가지 경우에 사람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우리에게 좀 이상해 보이는 반응을 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히브리어로 *מי יודע* [미 요데아], 곧 “누가 알라?”라고 말했다.

이 “누가 알라?”라는 반응은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상황에서 나왔다. 첫째로, 밋세바와의 간음 문제로 다윗을 대면할 때 나단은 다윗에게 삼하 12:14 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삼하 12:14 개역개정)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이는 죽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윗이 궁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설명한 것을 보면, 우리는 나단이 예언을 준 후, 그러나 그 아이가 실제로 죽기 전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삼하 12:22 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삼하 12:22)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여전히 기도와 회개를 통해 그 예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노력은 소용없었지만 다윗의 태도는 분명했다. 그 아이가 실제로 죽기 전에 다윗은 소망, 곧 “누가 알까?”라는 소망을 붙들었다.

이와 비슷하게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 주민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온 3:4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본다.

**(온 3:4 개역개정)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시 한 번,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다윗과 같이 반응했다. 온 3:9 에서 니느웨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온 3:9 개역개정)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세 번째 경우도 예언에 대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 율 2:1-11 에서 요엘 선지자는 끔찍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은 그의 청중에게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독려했다. 그가 회개와 금식을 독려한 이유가 율 2:14 에 밝혀져 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율 2:14 개역개정)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은 그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 개입되는 역사적인 속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확신했다.

이 “누가 알까?”라는 반응들이 구약의 신자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구약의 신자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들의 운명을

확정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개입되는 역사적 속발 사건들, 특히 기도라는 속발 사건이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믿었다.

## 2. 이중 반응(Twofold Reaction)

“누가 알라?”라는 반응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목적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갖게 된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들에 대한 이중 반응을 기대하고 희망했다.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경고한 심판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라도 확실히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길은 예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동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언약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고 선언할 때 그 백성이 심판이 제거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했다. 회개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복의 신탁들을 주었을 때도 역시 그들의 독자로부터 반응을 불러일으키길 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 예보된 복을 사라지게 하고 복을 심판으로 바뀌게 할 것이지만 계속되는 충성된 삶이 약속된 복을 확실히 받게 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선지자들은 청중이 적절한 행위를 통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촉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심판과 복의 예언을 주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징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 VI. 결론(CONCLUSION)

예언의 목적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우리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었다. 둘째로, 우리는 예언과 속발 사건을 다루었다. 셋째로, 우리는 예언의 확실성을 살펴보았다. 넷째로, 예언의 목표를 살펴보았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룬 개념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이 그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미리 역사에 대해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그들을 일깨우고 있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판을 피하도록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